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학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e Behaviors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for Improving Information Services

이 란 주 (Lan-Ju Lee)*

김 수 진 (Su-Jin Kim)**

초 록

본 연구는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이용자 요구에 기반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영학 관련 K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개인적인 배경, 일반적인 정보이용, 전자자원 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모바일 서비스 정보이용,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자원관리시스템(ERMS)을 구축하는 방안, 학술Web-DB 및 전자저널의 검색 활용 방법에 관한 이용교육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서비스, 주제전문서비스 및 맞춤형 정보서비스 등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ers' information use behaviors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vide library services based on user information needs. The methods of this study targeted the members of K Society in the business administration field, and employed user survey using a web-based questionnaire. A total of 202 users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focused on items such as by age and status, general information use, electronic resources use, SNS and mobile services information use,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use, and specialized business administration library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improving several library services.

키워드: 경영학분야, 정보이용행태, 이용자연구, 정보서비스, 주제전문사서
Business Administration Field, Information Use Behaviors, User Studies,
Information Services, Subject Specialist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lanju@dongduk.ac.kr)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ksujin0113@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 2015년 2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3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3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279-302,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1.279]

1. 서론

최근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의 양적 증가, 무한확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문 간의 고유영역은 점차 붕괴되고, 학문 영역의 세분화, 고도화에 따른 전문 정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이용환경에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킨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학술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전문분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정보의 수집, 보관의 전통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확장된 형태의 고부가가치 지식정보를 확보하고 있다(한종엽, 서만덕 2014). 국내에서는 각 학문 및 전문분야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한 연구가 197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와 더불어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경영학은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따라갈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한 영역이다(박영철 2006). 국내에서 경영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는 이진환(1988), 한연숙(1993), 박영철(2006), 김양우(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김양우(2012)는 정보이용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진환(1988)은 경영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에 초점을 두어 경영학분야의 선행연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의 연구대상이 대학교 집단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환경인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하여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문 및 전문분야 별로 각각의 정보이용행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이용행태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해서 정보이용자들의 행태를 조사한다.

둘째,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한다.

셋째,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디지털정보환경에서 전자자원의 이용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이용전망 등을 파악한다.

넷째,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경영학분야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

경영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써 기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이다. 20세기는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체계화와 이의 전달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독립하였다. 즉, 개별경제 특히 기업경영에 대한 기본적 원리와 원칙을 도출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유세준 외 2013). 경영학은 조직의 운용·조직·지휘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특성을 가진 학문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병원, 대학, 군대, 기업, 정부, 교회 등 나름의 목적달성을 위해 형성된 모든 유형의 조직에서 일반적인 경영원리가 적용 가능하다(임창희 2011).

경영학은 이론과 실재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 학문으로서 이론적으로 조직의 경영현상을 사실적으로 분석하여 경영원리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동시에 경영활동이 전개되는 원리를 분석적이고 실천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적 특성을 갖는다. 경영학의 학문적 체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영학은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영현상의 상황적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학의 학문적 체계와 관련하여,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원론적인 측면과 실재를 중심으로 하는 각론적인 측면에서 김원수(1990)는 경영학의 분류 체계를 구성하였다. 경영학원론과 경영학각론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경영학원론에는 경영학 방법론, 기업환경론, 기업형태론, 경영자론, 경영조직론, 경영관리론이 포함된다. 경영학각론에는 생산/운영관리론, 마케팅관리론, 인적자원관리론, 재무관리론, 경영정보관리론, 회계관리론, 국제경영관리론이 속한다.

경영학은 학문적 특성상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신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학술저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영·경제 분야의 학생과 교수들의 검색방식 및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방식이 단순하고 정보이용과 탐색 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은 학술검색 시 주로 구글(Google)과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BER, UCL 2009).

2.2 정보이용행태와 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이용자 연구, 정보요구와 이용, 정보이용행태 혹은 정보추구행태 등으로 불러진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도서관이 이용되어야 하며, 얼마나 이용자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도서관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그 환경에 속해 있는 다양한 이용자 계층까지 시각을 확대해 준다(정동열, 김성진 2010). 또한 정보요구에 대한 인지적, 사회적인 많은 연구접근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정보이용자는 이러한 정보요구를 인식한 다음 자신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정보이용행태라 한다(권현우 2010).

정보서비스는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사서가 도와주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정보서비스의 정의에서 벗어나 단순한 사서의 도움의 제공이 아니라 해답의 제공이라는 직접 서비스의

의미가 많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정보환경에서는 막대한 정보 속에서 적절한 정보원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사서는 정보를 탐색할 뿐만 아니라 탐색된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이용자의 관심정보를 분석하여 최신 학술정보 동향을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준식 2011). 맞춤형 정보서비스는 정보의 활용에 관한 자문 역할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공해줄 수 있어 전문적인 정보를 주로 다루는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는 점차 중요한 정보서비스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주제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제전문사서의 역할 또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서비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이 나타나고 있다. 최첨단 기술들의 등장은 차세대 디지털도서관에 응용되어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획기적인 정보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제공해 나갈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사회적 인간 관계망을 웹상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SNS의 활용률을 높였다.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SNS를 기반한 정보서비스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한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차세대 이용자를 위한 앞서가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2.3 선행연구

학문 및 전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김두홍(1974)이 과학자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모형을 개발한 것을 그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한종엽, 서만덕 2014).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는 과학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용자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학문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인문학, 예술분야에서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목적은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국내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영역, 연구대상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 영역이 경영, 경제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세분화된 학문 분야의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연구대상의 표본 수가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현격히 적으며, 연구대상이 하나의 집단을 통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주로 소규모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한 국내 연구로는 이진환(1988)과 한연숙(1993)의 연구와 박영철(2006)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진환(1988)은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정보의 정보유통과정과 그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의 효율적 정보유통체제를 확립시키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영학분야 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는 학술잡지였으며 다음은 단행본, 연

구보고서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분야 연구자들과 달리 정보탐색 활동에 있어 정보서비스 기관의 정보담당자에게 의뢰하기보다는 동료교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며, 도서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는 전공분야 도서 및 자료 확충, 참고도서 및 자료 확충 순으로 나타났다.

한연숙(1993)은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입수 경로와 정보요구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경영학분야의 석사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자료 형태는 학술잡지(5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한 학술잡지 혹은 논문을 통해 가장 많이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진환(1988)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다른 형태의 매체나 채널보다 학술잡지가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었으며, 아이디어 출처 또한 학술잡지 또는 논문이 1순위로 나타났다.

박영철(2006)은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자 S대학 경영학 관련 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면담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경영학분야 교수들이 선호하는 정보자료는 학술저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 학회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회자료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유방안을 제안하였다.

오늘날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해 인터넷과 전자자원뿐 아니라 모바일과 SNS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들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2011)은 IT Skill과 정보 활용 등을 조사하였고, 신용수(2012)는 SNS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최우석, 양동우(2014)는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휴대형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이용요구를 분석하였다. 특히, 신용수(2012)는 연구결과에서 도서관의 SNS 활용을 향후 정보서비스 개선 정책에 고려될 사항이라고 하였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분석이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이용행태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경영학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있었으나, 일반적인 정보이용행태를 규명한 연구는 약 10년 전의 박영철(2006)의 논문으로 현재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의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경영학은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다방면의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대학교에서만 아니라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경영학이란 학문을 응용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정보이용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연구대상이 대학교 소속에만 집중되어 있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도 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이 연구·학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범위 및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영학 관련 학회인 K

학회 회원으로 선정하였다. K학회는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를 하며, 경영학, 경영과학, 행동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정의는 교수를 포함하여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들로 학술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로 하였다.¹⁾

K학회는 총 4,000여 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회원리스트에서 45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자메일을 통해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웹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메일주소의 오류 등의 이유로 반송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02건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3.2 설문지 구성

경영학분야 연구자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항목은 한중엽, 서만덕(2014)과

이명희, 정혜련(2012)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SNS 및 모바일 서비스 정보이용과 관련해서는 신용수(2012)와 최우석, 양동우(2014)가 사용한 설문 문항을 참조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과학분야 연구는 최근에 대두되는 디지털환경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의 2010년도 이후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사전검증을 위해 관련 연구자 4명에게 사전테스트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조사영역은 크게 1) 개인적인 배경, 2) 일반적인 정보이용, 3) 전자자원 이용,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모바일 서비스 정보이용, 5)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6) 경영학 전문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등 총 6개 부분이며 설문지 구성은 <표 1>과 같다. 설문지는 총 28개의 질문과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바라는 점을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설문지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1) 개인적인 배경	연령
	신분
2) 일반적인 정보이용	정보이용 목적
	정보입수 경로
	주로 이용하는 정보 유형
	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 유형

1) 학술진흥법 제 7조에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 범위를 확장시켜 학문후속세대육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K학회에 가입하여 경영학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들이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대학생(학부생)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자 범위에 포함하였다.

조사영역	조사내용
2) 일반적인 정보이용	정보이용 기기
	정보수집 시 어려운 점
3) 전자자원 이용	전자자원 이용 이유
	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국내·외 전자자원
	기타 국내·외 전자자원
	전자자원 이용의 문제점
4) SNS/모바일 서비스 정보이용	SNS 이용 여부
	주로 이용하는 SNS 유형
	SNS를 통해 수집 및 교류하는 연구·학술 정보 유형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 이용 여부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 및 교류하는 연구·학술 정보 유형
5)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의향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빈도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목적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요구 사항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요구하는 교육
	맞춤형 정보서비스 이용 의향
6)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요구 형태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여부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장점
	경영학 주제전문사서 중요 업무 능력

4. 연구 분석 및 결과

소, 기업체 소속의 이용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4.1 설문 분석 결과

4.1.1 개인적인 배경

1) 응답자의 연령 및 신분

본 연구에 참여한 개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 19.8%, '30대' 26.2%, '40대' 36.6%, '50대 이상' 17.3%로 조사되었다. 신분별로는 '교수' 35.1%, '석·박사' 16.8%, '연구원' 12.4%, '기업체종사자' 23.8%, '기타(학부생)' 11.9%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대학교 소속의 신분을 가진 이용자는 63.8%로 나타나 연구

〈표 2〉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0대	40	19.8
	30대	53	26.2
	40대	74	36.6
	50대 이상	35	17.3
	합 계	202	100
신분	교수	71	35.1
	석·박사	34	16.8
	연구원	25	12.4
	기업체 종사자	48	23.8
	기타(학부생)	24	11.9
	합 계	202	100

4.1.2 일반적인 정보이용

1) 정보이용 목적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은 '연구/기업 프로젝트 수행'과 '논문 작성'이 각각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전반적인 연구동향 파악' 17.6%, '업무활용'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정보이용 목적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연구/기업 프로젝트 수행	127	25.3
논문 작성	127	25.3
전반적인 연구동향 파악	88	17.6
업무활용	83	16.6
강의준비 및 교수활동	71	14.2
기타	5	1.0
합 계	501	100

2) 정보입수 경로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 28.2%, '학회, 세미나 컨퍼런스 참석'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자관 구독 전자저널 원문에 접근하는 방법 등에 관한 이용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

〈표 4〉 정보입수 경로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 네이버 등)	160	32.3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 (온/오프라인)	140	28.2
학회, 세미나 컨퍼런스 참석	82	16.5
외부 정보서비스기관	70	14.1
동료 및 전공 관련 분야의 전문가	41	8.3
기타	3	0.6
합 계	496	100

3) 주로 이용하는 정보 유형

주로 이용하는 정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자자료가 92.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과 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문적 특성상 최신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 주로 이용하는 정보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전자자료	187	92.6
인쇄자료	15	7.4
합 계	202	100

4) 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 유형

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데 있어 주로 이용하는 정보 유형을 우선순위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의 경우 '학술논문'이 58.9%로 가

〈표 6〉 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 유형 1순위

구분	1순위	
	빈도	비율(%)
학술논문	119	58.9
연구보고서	24	11.9
시장/마케팅 정보	21	10.4
통계자료	9	4.5
기술동향정보	8	4.0
단행본	6	3.0
세미나 자료	6	3.0
정부정책정보	6	3.0
학위논문	3	1.5
특허정보	0	0.0
합 계	202	100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연구보고서' 11.9%, '시장/마케팅정보'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참조).

5) 정보이용 기기

정보를 이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데스크톱 PC'가 39.7%, '노트북'이 36.6%로 나타나 다른 기기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표 7> 참조).

<표 7> 정보이용 기기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데스크톱 PC	142	39.7
노트북	131	36.6
스마트폰	59	16.5
태블릿 PC	25	7.0
기타	1	0.3
합 계	358	100

6) 정보수집 시 어려운 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료정보에 대한 이용부담'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목적에 적합한 자료탐색 및 선별의 어려움'이 24.3%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정보수집 시 어려운 점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유료정보에 대한 이용부담	104	28.0
목적에 적합한 자료탐색 및 선별의 어려움	90	24.3
필요한 정보 소재파악의 어려움	86	23.2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 전자자료의 다양성 부족	57	15.4
이용방법이나 검색 등 기술적인 문제	29	7.8
기타	5	1.3
합 계	371	100

4.1.3 전자자원 이용

1) 전자자원 이용 이유

전자자원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근 및 검색의 용이함'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음'이 26.7%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전자자원 이용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접근 및 검색의 용이함	128	63.4
시·공간의 제약이 없음	54	26.7
자료의 최신성을 제공함	11	5.4
비용이 들지 않음	9	4.5
기타	0	0.0
합 계	202	100

2) 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국내·외 전자자원

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국내·외 전자자원(Web-DB 및 E-Journal)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KISS(한국학술정보)'가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KERIS(RISS)' 17.6%, 'ScienceDirect' 14.4%, 'DBPIA(누리미디어)' 14.3%, 'EBSCOhost' 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3) 기타 국내·외 전자자원

위에서 언급한 항목 외에 주로 이용하는 국내·외 전자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으로 조사하였다. 46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을 포함한 '구글(Google)'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영정보학분야 저널 'MIS Quarterly(MISQ)', '삼성경제연구소(Seri)', 공학 주제 분

〈표 10〉 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국내·외 전자자원

순위	Web-DB 및 E-Journal	빈도	비율(%)
1	KISS(한국학술정보)	132	21.2
2	KERIS(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110	17.6
3	ScienceDirect	90	14.4
4	DBPIA(누리미디어)	89	14.3
5	EBSCOhost	62	9.9
6	ProQuest	54	8.7
7	JSTOR	51	8.2
8	E-Article(학술교육원)	21	3.4
9	뉴논문	5	0.8
9	KISVALUE	5	0.8
9	CSA(Cambridge Scientific Abstracts)	5	0.8
합계		624	100

야의 학술정보 DB 'IEEE Xplore', 경영학 정보 사이트 '에메랄드(EMERALD)'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외 전자자원에 대한 지원 및 이용자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4) 전자자원 이용의 문제점

전자자원 이용 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순위형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의 경우 '유료정보에 대한 이용부담'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은 '목적에 적합한 자료탐색 및 선별의 어려움'이 36.1%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전자자원 이용의 문제점 1순위

구분	1순위	
	빈도	비율(%)
유료정보에 대한 이용부담	82	40.6
목적에 적합한 자료탐색 및 선별의 어려움	73	36.1
원하는 정보가 어느 전자 DB에 속해있는지 선택의 어려움	36	17.8
전자/온라인 정보 이용법을 잘 모름	11	5.4
합계	202	100

4.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모바일 서비스 정보이용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여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음'이 8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있음	179	88.6
없음	23	11.4
합계	202	100

2)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형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형으로 '페이스북'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형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페이스북	136	36.7
카카오토티	78	21.0
블로그	56	15.1
기타(밴드, 싸이월드 등)	48	12.9
트위터	35	9.4
인스타그램	18	4.9
합 계	371	100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집 및 교류하는 연구·학술 정보 유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집 및 교류하는 연구·학술 정보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료 연구자와 정보교류'가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신 연구동향' 27.3%, '컨퍼런스(Conference) 관련 정보'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9.0%)'에는 '해당 분야 종사자와의 실무정보', '산업 및 기술 동향', '최신 뉴스'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표 14〉 참조).

〈표 14〉 SNS를 통해 수집 및 교류하는 연구·학술 정보 유형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동료 연구자와 정보교류	71	29.0
최신 연구동향	67	27.3
컨퍼런스(Conference) 관련 정보	41	16.7
학회 정보	31	12.7
기타	22	9.0
학술지 논문	13	5.3
합 계	245	100

4)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 이용 여부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를 이

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음'이 63.4%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이는 스마트폰으로 학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홍보 부족에 기인될 수도 있다.

〈표 15〉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 서비스 이용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있음	74	36.6
없음	128	63.4
합 계	202	100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30-40대'의 경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이상'은 17.1%에 불과했다(〈표 16〉 참조). 50대 이상의 낮은 비율은 스마트폰 액정이 작아 불편할 수 있으며, 원문정보서비스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신분별로 조사한 결과 모든 신분에서 '없음'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연구원' 신분만이 이용한 적이 '있음'이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표 17〉 참조). 교수, 학생, 기업체 등보다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연구자들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5)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 및 교류하는 연구·학술 정보 유형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 및 교류하는 연구·학술 정보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신 연구동향'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학술지 논문' 21.5%, '컨퍼런스(Conference)

〈표 16〉 연령별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 이용 여부

구분		이용 여부				
		있음	비율	없음	비율	합계(%)
연령	20대	13	32.5	27	67.5	40(100)
	30대	20	37.7	33	62.3	53(100)
	40대	35	47.3	39	52.7	74(100)
	50대 이상	6	17.1	29	82.9	35(100)
합계		74	36.6	128	63.4	202(100)

〈표 17〉 신분별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 이용 여부

구분		이용 여부				
		있음	비율	없음	비율	합계(%)
신분	교수	21	29.6	50	70.4	71(100)
	석·박사	15	44.1	19	55.9	34(100)
	연구원	16	64.0	9	36.0	25(100)
	기업체 종사자	13	27.1	35	72.9	48(100)
	기타(학부생)	9	37.5	15	62.5	24(100)
합계		74	36.6	128	63.4	202(100)

관련 정보'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8〉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 및 교류하는 연구·학술 정보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최신 연구동향	44	24.9
학술지 논문	38	21.5
컨퍼런스(Conference) 관련 정보	33	18.6
동료 연구자와 정보교류	31	17.5
학회 정보	28	15.8
기타	3	1.7
합계	177	100

6)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의향

스마트폰을 통해 연구·학술정보서비스를 이

용해보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앞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의 응답이 62.6%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학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점차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 스마트폰을 통한 연구·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의향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있음	13	10.2
조금 있음	40	31.3
보통	27	21.1
별로 없음	39	30.5
전혀 없음	9	7.0
합계	128	100

4.1.5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1)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빈도 (온/오프라인)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2번'이 30.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 달에 1-2번' 23.3%, '일주일에 3-4번'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표 20〉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빈도(온/오프라인)

구분	빈도	비율(%)
일주일에 1-2번	61	30.2
한 달에 1-2번	47	23.3
일주일에 3-4번	34	16.8
거의 방문하지 않음	32	15.8
거의 매일	28	13.9
합 계	202	100

2)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목적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이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 '학술Web-DB 검색 등 이용'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도서관 자료 열람 및 대출' 3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2.8%)'에는 '최신기술정보동향 파악', '자료 작성', '독서'의 의견이 있었다(〈표 21〉 참조).

〈표 21〉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목적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학술Web-DB 검색 등 이용	125	43.6
도서관 자료 열람 및 대출	111	38.7
참고정보서비스 이용	32	11.1
상호대차 서비스	11	3.8
기타	8	2.8
합 계	287	100

3)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요구 사항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요구 사항을 살펴본 결과 '국내·외 자료의 원문 DB 구축'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전공분야 및 참고자료의 확충' 3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표 22〉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요구 사항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국내·외 자료의 원문 DB 구축	150	47.8
전공분야 및 참고자료의 확충	125	39.8
도서관 자료이용법 특강	19	6.1
도서관 시설확충	17	5.4
기타	3	1.0
합 계	314	100

4)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요구하는 교육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요구하는 교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술Web-DB 및 전자저널의 검색 활용 방법에 관한 이용교육'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료관리교육(RefWorks, EndNote 등)' 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표 23〉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요구하는 교육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학술Web-DB 및 전자저널의 검색 활용 방법에 관한 이용교육	120	41.1
자료관리교육(RefWorks, EndNote 등)	77	26.4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자원 이용교육	55	18.8
전반적인 도서관 자료 이용법 교육	26	8.9
기타	14	4.8
합 계	292	100

5) 맞춤형 정보서비스 이용 의향

전공 관련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할 때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음'이 71.8%로 높게 나타났다(〈표 24〉 참조).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 요구 및 정보이용행태에 기반 한 맞춤형 정보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맞춤형 정보서비스 이용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있음	145	71.8
없음	27	13.4
잘 모르겠음	30	14.9
합 계	202	100

6) 맞춤형 정보서비스 요구 형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자메일'이 8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5〉 참조). 이는 연구자가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사서가 연구자를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연구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편한 시간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5〉 맞춤형 정보서비스 요구 형태

구분	빈도	비율(%)
전자메일	120	82.8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3	9.0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	7	4.8
사서의 방문 서비스	4	2.8
기타	1	0.7
합 계	145	100

4.1.6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1)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경영학분야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이 64.9%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이 35.2%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표 26〉 경영학분야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필요함	131	64.9
필요하지 않음	71	35.1
합 계	202	100

2)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여부

경영학 주제전문사서가 있는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없음'이 92.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있음'은 7.9%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표 27〉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없음	186	92.1
있음	16	7.9
합 계	202	100

3)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장점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와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8〉 참조).

〈표 28〉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장점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와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12	32.4
경영학분야 자료가 다양함	11	29.7
경영학분야 자료 확보가 편리함	8	21.6
최신의 자료이용이 가능함	4	10.8
기타	2	5.4
시설이 좋음	0	0.0
합 계	37	100

4)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의 중요 업무 능력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의 중요 업무 능력에 대해 우선순위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 경우 '경영학분야에 대한 지식'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정보(DB)검색 능력' 24.8%, '커뮤니케이션 능력'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참조).

〈표 29〉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의 중요 업무 능력 1순위

구분	1순위	
	빈도	비율(%)
경영학분야에 대한 지식	120	59.4
정보(DB)검색 능력	50	24.8
커뮤니케이션 능력	22	10.9
서비스 마인드	10	5.0
합 계	202	100

4.1.7 기타 의견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에게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개방형으로 조사한 결과 총 68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가 서술한 의견은 5개의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전문 Web-DB 및 최신자료 확충, 2) 이용자 교육, 3)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4) 유료 정보서비스 개선, 5) 전문사서의 역할.

1) 다양한 전문 Web-DB 및 최신자료 확충
 응답자 68명 가운데 26.5%(18명)가 다양한 학술Web-DB 구축을 통해 자료를 신속하게 찾기를 원했다. 특히 외국 자료에 대한 DB가 확충되고, 경영학 관련 최신자료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기를 기대하였다.

2) 이용자 교육
 응답자의 11.8%(8명)가 이용자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유용한 자료를 많이 두고 있지만, 사실상 그 정보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료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 자료 이용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또한 학술 DB 및 전문 DB 검색 방법에 관한 교육도 제공 받길 요구하였다.

3)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맞춤형 정보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별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응답자 중 8.8%(6명)가 맞춤형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용자의 지식수준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길 원했다. 또한 세부 분야 주제에 따라 SNS나 모바일을 통해 최신 논문과 주목 받는 논문을 추천해주시기를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새로운 자료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최신정보 및 동향에 대한 알람 서비스 등을 제공

받길 원했다.

4) 유료 정보서비스 개선

응답자 가운데 연구·학술활동 시 자료 입수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 5.9%(4명)이 언급하였다. 해외자료에 대한 유료서비스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국내 논문들도 유료로 된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유료 자료를 최대한 무료로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되길 요구하였다.

5) 전문사서의 역할

전문사서를 통해 도움을 받길 원하는 응답자는 4.4%(3명)로 나타났으며, 전문사서에게 DB 정보를 물었을 때 정확히 찾아내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제공자로서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주제전문성을 갖춘 사서의 역할이 도서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 외에도 정보 접근의 편의성, 신속한 상호대차 서비스, 키워드 위주의 검색의 세분화, mobility solution 도입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무인 서비스 이용, 정보들 간의 온톨로지 구축을 통한 시멘틱 검색 강화, 논문 및 도서를 보유한 대학교 간/업계 간 연동 위치 확인서비스, 사서의 서비스 마인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2 논의

1) 정보이용 목적 및 정보입수 경로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연구/기업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매체의 대중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최우선으로 선호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자원관리시스템(ERMS)을 구축하고 자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Web-DB 및 전자저널의 원문을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이미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전자자원 이용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전자자료의 이용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92.6%)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로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과 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2011) 연구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전자자료 이용비율이 66.0%, 한종엽, 서만덕(2014)의 연구에서 해양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전자자료 이용비율이 75.9%로 나타났다.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고도화와 전문지식 콘텐츠 확보 및 제공에 주력해야한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및 전자책(E-book)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전자저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학분야 국내·외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최대한 전자형태로 볼 수 있도록 Web-DB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

하게 전자자원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수집 시 겪는 어려움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전자자원을 포함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유료정보에 대한 부담이라고 답했다. 연구자가 희망하는 학술지가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개별 연구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국내·외 Web-DB를 최대한 구독하여 학술저널 원문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용자 측면에서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했듯이 경영학 연구자들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3.8%)이 매우 낮았다. 국내에서는 소속 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복사/대출 서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제공하는 NDSL의 원문복사 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RISS, 해외 원문제공 제공기관인 BLDSC(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 BL)과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등에서 제공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문에 경제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경로의 상호대차 서비스에 관한 도서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유료정보에 대한 부담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도서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정보입수 시 소요 비용을 도서관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 여부 및 유형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SNS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용수(2012)의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이 SNS를 47.3%가 이용하였으나,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SNS를 88.6%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의 이용이 대중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NS에서 동료 연구자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신 연구동향과 컨퍼런스 관련 정보도 SNS를 통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는 신용수(2012)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정보서비스 개선 정책에 SNS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페이스북에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 계정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 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장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과 컨퍼런스 관련 정보 등의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도서관의 자연스러운 홍보뿐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 연구·학술정보를 획득해 나갈 것이다.

5) 정보이용 기기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정보를 이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데스크톱 PC(39.7%)와 노트북(36.6%)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63.4%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구·학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2011)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들은 데스크톱 PC를 85%가

이용하였으나 모바일 서비스는 15%만이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원문 자료를 작은 모니터로 보면 불편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매체가 더 많이 보급되고 진화한다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학술정보를 수집, 교류, 활용할 의향에 대해 긍정의 응답이 62.6%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학술정보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잠재적 이용자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연령별로는 '30-40대'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학술정보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6명에 불과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으로 학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특성상 대학교 소속의 이용자들이 많았으며,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이는 대학도서관의 홍보 부족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Web-DB(KISS, RISS, DBPIA 등)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6)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요구 사항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이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바라는 사항으로 국내·외 자료의 원문 DB 구축을 가장 요구하였고, 이용자 교육에 있어서는 학술Web-DB 및 전자저널의 검색 활용 방

법에 관한 이용교육과 자료관리교육(RefWorks, EndNote 등) 순으로 제공받길 원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국내·외 전문Web-DB 구축을 통해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및 정보센터가 아무리 다양하고 유용한 Web-DB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이용법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연구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국내·외 학술Web-DB 및 전자저널의 검색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일정 기간 마다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영학 연구자들이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제시하였듯이 경영정보학분야 저널인 MIS Quarterly (MISQ),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영학 정보사이트 에메랄드(EMERALD)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Web-DB 및 전자저널을 소개하는 리스트를 소속 도서관 사이트, SNS, 모바일도서관 등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이미 다양한 서지 프로그램 및 DB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제공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맞춤형 정보서비스의 이용 의향 및 요구 형태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의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71.8%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는 전자메일로 받길 요구하였다. 이는 경영학 연구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편리한 시간에 사

서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기반 하여 누적된 이용자의 검색리스트를 DB 화하여 시멘틱 웹 방식으로 유사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한다면 이용자 만족도에 기여할 것이다.

8)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

경영학분야 주제전문사서가 있는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9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경영학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하다고 64.9%의 응답자가 답변을 미루어 앞으로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은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와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을 장점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의 중요 업무 능력과 관련하여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의 경영학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DB)검색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영학분야에 대한 지식은 사서 한 사람이 가지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경영학이라는 분야는 앞서 학문적 특성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영학적 지식체계를 제대로 습득하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다양한 조직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학문적 지식도 매

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경영학부 또는 경영학과에서 필수적인 과목들을 살펴보면 경영의 주요 기능영역별로 세부전공 기초과목인 생산/운영관리, 마케팅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경영정보관리, 국제경영학, 회계학 등이 있다(이신모, 한만호 2003).

이용자의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자관의 사서들이 경영학 관련 주제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제지식과 함께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사서의 관련 주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 정보검색능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학 지식과 관련분야 자료검색 능력을 갖춘 전문사서의 역할이 커진다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보다 효율적인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학문 및 전문분야별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으로 경영학분야의 다양한 직위, 연령, 신분을 가진 연구자들

이 소속되어 있는 K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형식은 웹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반송 등의 경우를 제외한 202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조사 영역으로 연구자들의 연령, 신분을 조사하였고, 일반적인 정보이용, 전자자원 이용, SNS 및 모바일 서비스 정보이용,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경영학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기반을 둔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1) 전자정보원에 대한 편리한 접근점 및 Web-DB 시스템 개선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연구/기업 프로젝트 수행과 논문 작성이었으며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인쇄자료와 달리 전자자료의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웹 환경에 따른 정보이용 유형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전자책 서비스를 비롯하여 연구/기업 프로젝트 수행과 논문 작성 시 국내·외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최대한 전자형태로 볼 수 있도록 Web-DB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보에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자원관리시스템(ERMS)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네이버와 구글 등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자관의 전자자원(원문)을 바로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2) 유료정보 사용에 대한 부담의 최소화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전자자원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전자자원 이용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료정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였다.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예산을 확보하여 국내·외 Web-DB를 최대한 구독함으로써 학술저널 원문에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원문이 없는 경우 상호대차 서비스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이 이용자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서비스 등 차세대를 위한 대비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88.6%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수집 및 교류하는 연구·학술 정보 유형은 동료 연구자와 정보교류와 최신 연구동향 등이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정보서비스 개선 정책에 SNS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SNS를 통해 최신 연구동향과 컨퍼런스 관련 정보 등의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도서관의 자연스러운 홍보뿐 아니라 더 많은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 연구·학술정보를 획득해 나갈 것이다.

한편,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연구·학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학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경영학

분야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Web-DB(KISS, RISS, DBPIA 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이용자교육 및 능동적인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은 학술Web-DB 검색을 위해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소속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학술Web-DB 및 전자저널의 검색 활용 방법에 관한 이용교육을 제공받길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들에게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학술Web-DB 및 전자저널의 검색 활용 방법교육을 일정 기간 마다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교육 방법에서도 동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시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한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메일과 SNS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주제에 따라 최신 논문 및 주목받는 논문을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함은 물론 능동적인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경영학 주제전문사서 도입 및 경영학 전문도서관 운영

정보의 범람 속에서 경영학분야의 연구자들

에게 효율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전문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영학분야 주제전문사서가 있는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7.9%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경영학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영학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장점으로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와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경영학 주제전문사서의 인력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사서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함으로써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경영학 관련 K학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기 때문에 경영학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설문 대상을 좀 더 확대하거나 경영학의 세부전공(마케팅, 재무, 인사, 경영정보, 회계 등)별로 이용자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설문조사와 함께 면담법을 병행한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권현우. 2010. 『공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C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문헌정보).
- 김두홍. 1974. 전국수준의 과학자의 정보이용과 정보이용행동에 관한 조사를 위한 설문지안. 『정보관리연구』, 7(2): 31-34.
- 김양우. 2012. 정보행태 불확신성에 관한 연구: 경영학분야 박사과정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65-89.
- 김원수. 1990. 『경영학원론』. 서울: 경문사.
-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 2011.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189-208.
- 박영철. 2006. 『경영학 분야 교수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경영지도학과.
- 박준식. 2011.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사.
- 신용수. 2012.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유세준 외. 2013. 『글로벌 시대의 경영학원론』. 파주: 법문사.
- 이명희, 정혜련. 2012.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99-316.
- 이신모, 한만호. 2003. 『CEO에게서 배우는 경영학』. 서울: 두양사.
- 이진환. 1988. 『경영학분야 학술정보 유통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임창희. 2011. 『경영학원론』. 파주: 학현사.
- 정동열, 김성진. 2010. 『문헌정보학 이론과 원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최우석, 양동우. 2014. 과학기술 연구자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비교 탐색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1946-1952.
- 한연숙. 1993. 『경영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 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한중엽, 서만덕. 2014. 해양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163-187.
- CIBER. 2009. JISC User Behaviour Observational Study. UCL: Cibe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Woo-Seok and Dong-Woo Yang.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Use Patterns of Science & Technology Resear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1946-1952.
- Han, Jong-Yup and Man-Deok Seo. 2014.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age Behavio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163-187.
- Han, Yeon-Sook. 1993. *A Study of Researcher-Behavior in the Use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Im, Chang-Hee. 2011. *Business and management*. Paju: Hakhyunsa.
- Jeong, Dong-Youl and Sung-Jin Kim. 2010. *Theory and Principl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im, Doo-Hong. 1974. "Questionnaire about a Survey on Information Use Behavior of Scientist."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7(2): 31-34.
- Kim, Jeong-Hwan, Jay-Hoon Kim and Jae-Young Hwang. 2011. "A Study on Information Users'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Doctoral Researchers in Digital 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3): 189-208.
- Kim, Won-Soo. 1990. *Business and management*. Seoul: Kyungmoonsa.
- Kim, Yang-Woo. 2012. "Uncertainty Study: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Doctoral Students in Business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65-89.
- Kwon, Hyun-Woo. 2010. *A Study of Information Use-Behavior of Researchers in the Engineering Field: With the Sample Survey of Professors of an Engineering College of C University*. M.A.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Lee, Jin-Hwan. 1988. *A Study on the Transfer and Uses of Scholarly Information in Management Scien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M.A.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Lee, Myeong-Hee and Hye-Lyun Jung. 2012. "Information Use Behaviors of Professors in Design Fie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99-316.

Lee, Shin-Mo and Man-Ho Han, 2003. *Management*. Seoul: Dooyangsa.

Park, Joon-Shik. 2011. *Information Services*.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Park, Young-Chul, 2006. *Research of Information Needs and User Behaviors of Faculties who are Teaching Business Management*. M.A.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mall Business, Dept. of Business Management.

Shin, Yong-Su, 2012. *A Study on the Science & Technology Researchers based upon the Published Research Papers and Information Behaviors*. Ph.D. diss. Chunga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o, Se-Joon et al. 2013. *Global management*. Paju: Bobmunsa.